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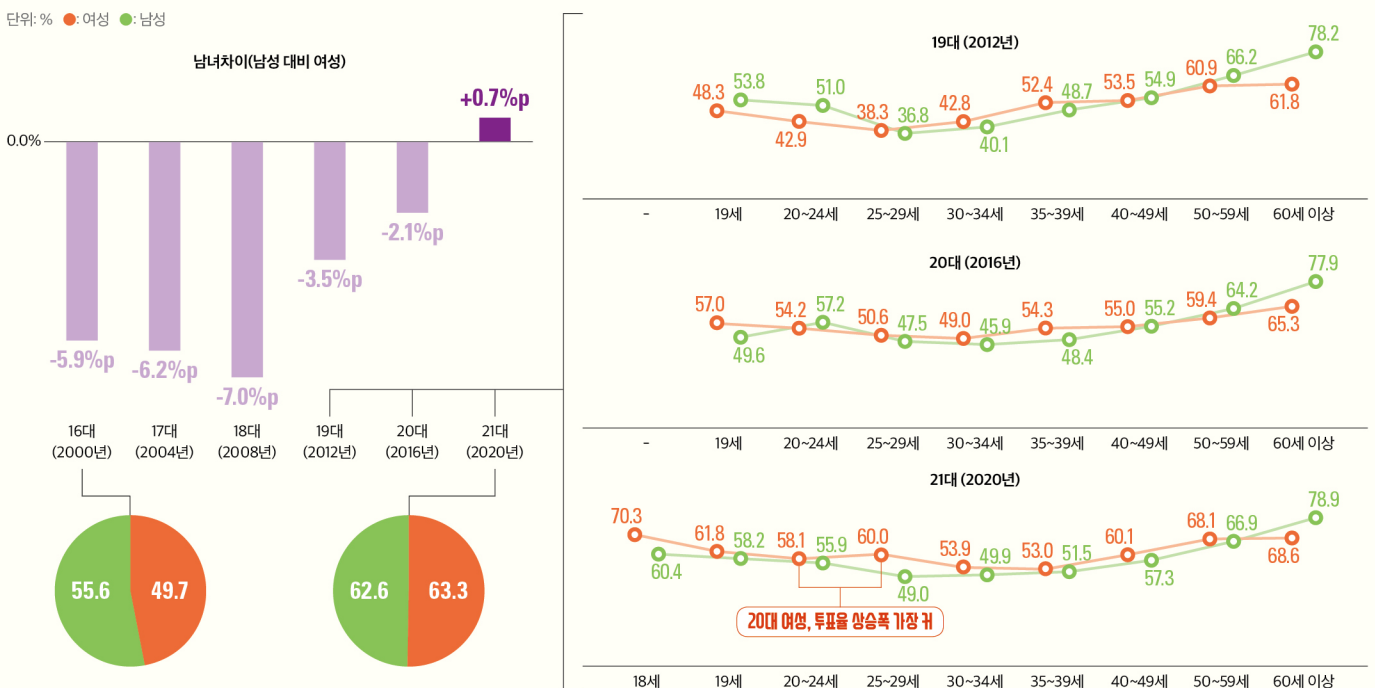
## 국회의원선거로 본 대전여성의 정치참여 대전 최초 여성 국회의원 나와

16대 국회의원선거까지 한 자리 수에 머물던 여성의원 수는 17대 선거에 들어 두 자리 수에 진입했으며, 꾸준히 늘었다.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 후보자 가운데 36명, 비례대표 24명의 여성이 국회로 진출했다. 이는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29명이 당선된 이후 최다 기록이다. 그러나 국민 절반이 여성인 것에 비해 여성 의원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여성의 투표 참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남성과의 격차도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면서,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여성 투표율이 남성을 앞지르기도 했다. 여성의 정치 참여와 대표성 확대, 유의미한 정치적 집단임을 증명하는 유권자로서 투표권 행사가 한 사회의 정치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이자, 평등 사회를 위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역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전여성의 투표를 통한 정치 참여율과 정치적 대표성은 어떤 변화를 보여왔을까?

### 대전 여성 투표율 남성보다 높아, 20대 여성 투표율 '경황'

16대(2000년)부터 21대(2020년) 국회의원선거까지 대전의 여성 투표율을 살펴보면, 18대에 다소 하락하긴 했지만 19대부터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투표율이 계속해서 낮다가, 편차가 점차 줄어들면서 21대에는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을 앞질렀다. 그렇다면 대전에 사는 여성과 남성의 연령대별 투표율은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을까? 여성은 19대 선거부터 21대 선거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투표율이 상승했으며, 20대 여성의 투표율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성별 투표율 격차는 점차 줄어들었고,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 여성 투표율이 남성 투표율보다 높았다. 특히 25-29세에서 남녀 투표율 격차(남성 대비 여성 +11.0%p)가 가장 컸다. 18세가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21대에는 10대 여성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 대전 16-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표본조사 자료임(전체 선거인의 일부를 표본수로 선정하여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투표율과 오차가 발생함)  
· 20대와 21대의 연령별 투표율에서 60세 이상은 60-69세, 70-79세, 80세 이상의 선거인 수와 투표자수 의 각 합계로 산출함  
· 22대 국회의원선거(2024.4.10.) 투표율 자료는 표본 분석 후 발표되기 때문에 현재 공시되지 않음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연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대전 국회의원 후보자 22명 중 여성 2명, 9.1%에 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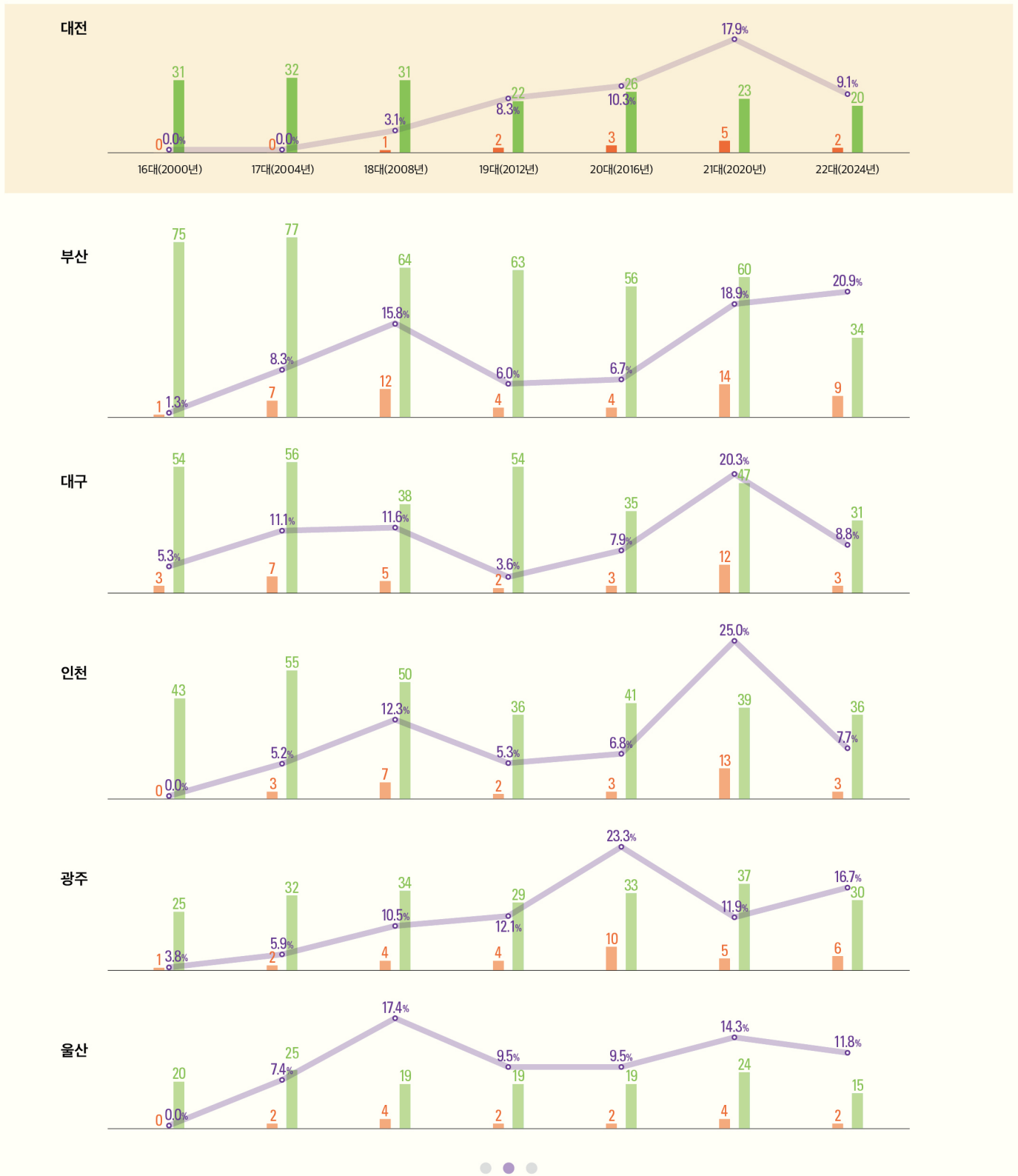
2000년 16대부터 2024년 22대 국회의원선거까지 6대 광역시를 지역구로 출마한 후보자 수를 살펴봤다.

\*후보자 수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수를 제외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수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

**16-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이**

대전을 지역구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여성은 2004년 17대까지 단 한명도 없었다. 2008년 18대 선거에 들어서 한 명의 후보자가 출마했고, 이후 조금씩 늘어났다. 2020년 21대 선거에서는 총 5명의 여성 후보자가 나와 역대 가장 높은 여성 후보자 비율을 보였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가장 많은 여성 후보자가 나온 지역은 부산으로 전체 후보자 중 20.9%(여성 9명, 남성 34명)를 차지했다. 이어서 여성 후보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광주 16.7%(여성 6명, 남성 30명), 울산 11.8%(여성 2명, 남성 15명), 대전 9.1%(여성 2명, 남성 20명), 대구 8.8%(여성 3명, 남성 31명) 순이었다. 가장 낮은 여성 후보자가 출마한 지역은 인천으로 7.7%(여성 3명, 남성 36명)에 그쳤다.

단위: 명 ● 여성 ● 남성



**대전 여성 당선자 '2명',  
첫 여성 국회의원 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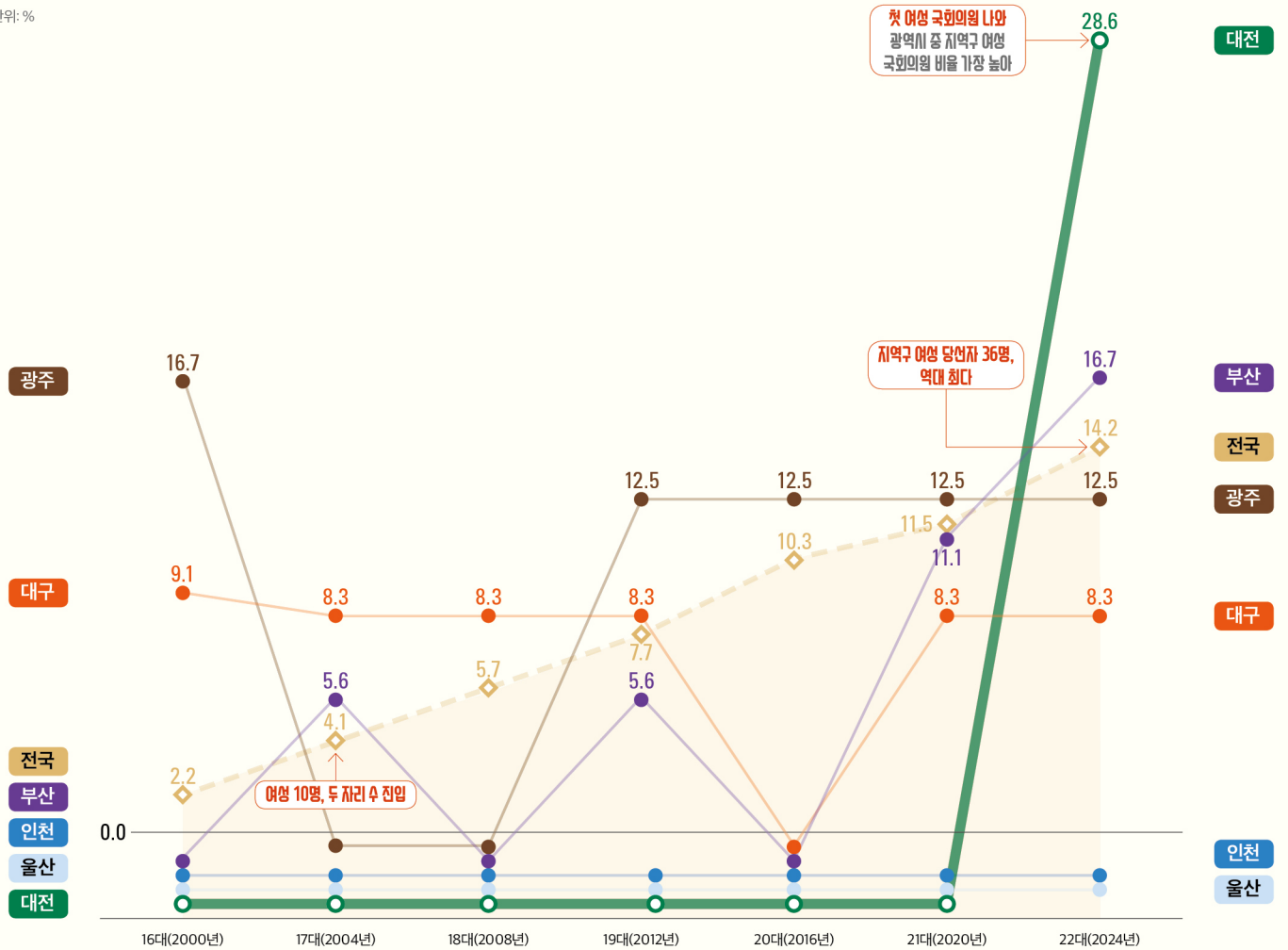
2000년 16대부터 2024년 22대 국회의원선거까지 전국 및 6대 광역시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를 살펴봤다.

\*전국 여성 당선자 비율은 비례대표국회의원 수를 제외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로 산출함  
\*22대 국회의원선거 자료는 당선자 수는 4월 11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자료임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

**16-22대 국회의원선거 '여성 당선자 비율' 추이**

14대(1992년) 국회의원선거까지는 여성 당선자 비율 0%였다. 이후 늘어나면서 16대 2.2%로 여성 당선인은 한 자리 수에 머물렀다.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의원은 10명, 4.1%로 처음으로 두 자리 수에 진입했다.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4년 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당선자 중 여성은 36명, 14.2%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6대 광역시의 여성 당선인 비율을 살펴보면, 대전시 출범 이래 처음으로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대전을 지역구로 당선된 7명 가운데 2명(28.6%)이 여성이다.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여성 당선인 비율이 나온 지역구는 부산(16.7%)이었다. 반면 인천과 울산에서 여성 국회의원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단위: %



**2024년 제1회(통합 28회) 젠더 콜로키움**

**노동'으로서의 돌봄, 그리고 가치: 돌봄×젠더×경제**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여성 및 가족 이슈와 담론을 파악하고,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젠더 콜로키움을 개최해오고 있다. 4월 23일 열린 콜로키움에서는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윤자영 교수가 '돌봄 노동의 이해와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서 충남대 사회학과 조명아, 전북대 문화인류학과 권순지,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서금순 부관장의 토론이 있었다. 이번 콜로키움을 통해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 원인을 젠더 불평등과 돌봄 비용에서 찾아보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되짚어보는 자리가 됐다.